

2/12(토) 민수기 19-21장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

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
생육과 번성,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성취되지만,
옛 세대에 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(14:29-30).

악한말로 원망한 자들은 디베랴에서 불타 죽었습니다(11:1).
먹거리로, 정탐과 관련하여 원망한 자들은 역병으로 죽었습니다(11:33,14:37).
하나님 없이 전쟁을 시도한 자들은 적의 손에 죽었습니다(14:45).
고라, 다단, 아비람과 250명의 지휘관은 지진과 불로 죽고(16:31-35),
이를 보고 원망한 백성 14,700명은 염병으로 죽었습니다(16:50).
길로 인해 원망한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(21:4-6).

하나님은 생명의 경로를 분명히 보이셨지만,
이스라엘은 스스로 죽음의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.
죄와 불순종은 이미 그 안에 고통과 죽음이 담겼습니다.
하나님은 막으시지만, 백성들은 이탈된 경로를 고수합니다.

모세마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(20:1-13).
예전 방식으로 실행하며(출17:6 참조),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(20:11).
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마치 술사인 듯 행하고 있습니다.
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옛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(14:30).
미리암, 아론,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(20:1,12,24).

하나님은 옛 세대의 죄와 죽음이 발생하는 중에도
새 세대가 정결을 유지하도록 규례를 주십니다(19장).
시체와 자주 접촉하게 되는 백성들이 제사장의 집행 없이도
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(19:11-12).
진영과 삶을 정결하게 보전하는 것은 제사장 몫이 아닙니다.
백성 한 사람, 한 사람, 공동체 전체의 책임인 것입니다.

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?

- ① 하나님 보이신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?
- ② 경로를 이탈하여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민수기 19-21장